

이왕직 아악부의 처용무 학습교재 연구

Learning Material for Cheoyongmu of Yiwangjik's Court Music Division

인남순¹⁾

Nam-Soon In¹

요 약

본고는 1967년부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에서 김기수, 김천흥 선생님께 사사했고, 1971년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처용무를 전수 받아 처용무에 관한 영상자료와 당시에 공연을 위해 학습하던 「무의」 「성경린 · 이병성」의 노트를 입수하게 되어 복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를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음악 반주 또한 현재 피리, 대금, 장고 좌고로만 반주하고 있는데 1931년 영상에는 생황, 비파, 적, 지, 훈 방향 등의 악기로 연주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반주음악의 복원작업 및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처용무의 학문적 연구에 있어, 올곧은 전승을 위한 자료로써 소중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이왕직, 아악부, 처용무, 영친왕, 무의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study and analyze the video footage for Cheoyongmu and notes for “Mui” and “Seong Gyeongrin · Lee Byeongseong” used at the time to practice the performance, after intensely feeling the need for restoration upon acquisition thereof while learning Cheoyongmu,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1971, under the tutelage of Kim Guisu and Kim Cheonheung at the National Gugak Center affiliated Korean Classical Musician Training Center since 1967. Music accompaniment is currently performed only with piri, daegeum, Janggu and jwago. However, in view of the fact that this was performed with musical instruments such as saenghwang, bipa, jeok, ji, and Hung banghyang in the video footage of 1931, the author deems restoration work and research of the accompaniment music necessary. This study should be valuable for proper transmission with respect to future academic research of Cheoyongmu.

Key words: Yiwangjik, court music division, Cheoyongmu, King Youngchin, Mui

1)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e-mail: insdance@hanmail.net

Received(November 5.2017), Review (December 15.2017), Accepted(December 31.2017)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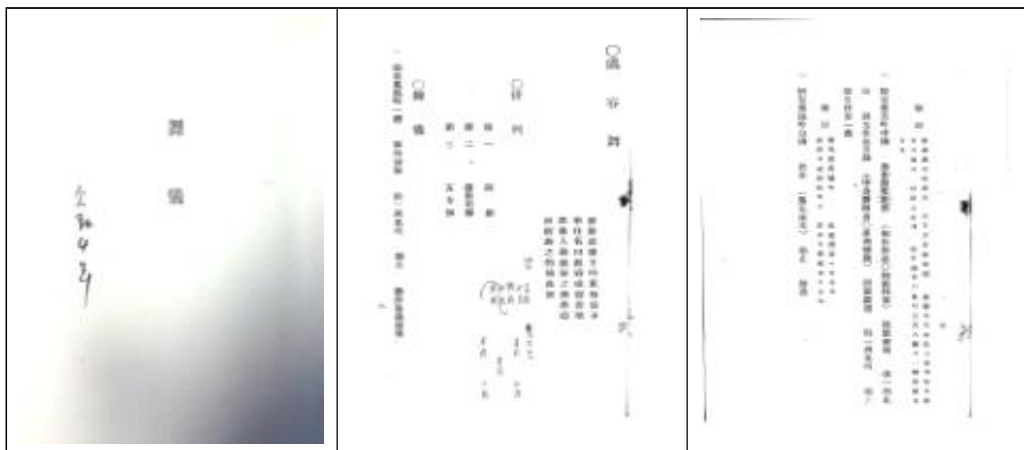
처용무는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200여 년간 궁중에서 나례 또는 연향에서 추어졌으며 평양을 비롯한 안동, 경주, 상주 등의 지방은 물론 한양의 교방청 및 사대부가들의 잔치에서도 추어졌던 유서 깊은 춤이다.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세계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춤이기에 『樂學軌範』, 『문才舞蹈笏記』 등의 문헌이나 조선왕조의궤 등에 처용무에 관한 자료들이 남아있다. 또한 춤의 절차나 음악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록된 일종의 舞譜로는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이왕직아악부 시절에 논자의 스승인 김천흥과 함께 학습하였던 이병성, 성경린이 친필로 학습내용을 기록한 자료인 記錄畵가 있다. 그밖에도 이왕직아악부에서 제작한 인쇄본 『무의(舞儀)』가 존재한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사라져가는 조선의 궁중문화 중 특히 예술분야를 옹골게 지켜 나가기위해 이왕직아악부에서는 조선총독부의 만류와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정재를 계승시켜왔다. 특히 1923년 순종의 50세 생일잔치와 1930년 영친왕 한국근친 환영연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악부생을 모집하여 훈련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무의(舞儀)』라는 교재를 만들고 되었고, 당시 아악부생이었던 이병성, 성경린이 정재를 배우며 상세히 기록한 노트가 앞서 말한 이병성, 성경린의 기록서이다. 두 기록서는 한문과 일본어 및 다소의 한글로 작성되어있으며, 작대도가 그려져 있고, 무원의 이름 등 1930년대의 정재에 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1929년대부터 1940년간의 처용무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있으므로 현행 처용무와는 다른 부분을 비교하고 분석 해보고자한다. 두 기록서의 처용무는 1967년 필자가 국립국악원부설국악사양성소에 입문하여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추어지고 있는 춤의 절차 및 음악과 창사 등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樂學軌範』, 『문才舞蹈笏記』 등의 문헌보다 현행 처용무와 흡사하면서도 음악과 춤동작의 설명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다시 말 해 자칫 사라질 뻔 했던 조선의 舞, 樂이 제 빛을 발휘 할 수 있었던 단 두 번의 공식행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 양상을 연구 할 수 있는 기록서라 할 수 있다. 본 비교연구는 향후 처용무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 올곧은 전승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II. 이왕직아악부 기록서 연구

1. 『무의(舞儀)』의 처용무

舞의神 1929년(昭和 4年) 이왕직아악부에서 정재를 지도하는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쇄본으로 봉래의, 무고, 처용무, 춘앵전, 향령무, 가인전목단, 수연장 만수무, 보상무, 장생보연지무 등 10종의 춤 절차가 기록되어있다.

이 책은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에 이흥구가 입학하여 당시 가곡을 지도해주던 이병성으로부터 1960년에 받은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舞의神에 기록된 처용무의 원문이다.



[그림 1] 1929년 (소화4년) 무의

[Fig. 1] Sowa 4 "Muwi" Court Dance Rituals and Mannerism, Text Book, (1929).

○處容舞

新羅憲康王時東海龍子 來仕名曰處容處容善歌

舞後入倣處容之所作假 而而舞之仍傳此舞

신라헌강왕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을 섬기며 그 이름은 처용이라 하였다.

처용은 가, 무를 좋아하였고, 그 후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전해진다.

○排 列 / 第一 回舞 第二 散作花舞 第三 五方舞

배 열 / 제1-회무 제2-산작화무 제3-오방무

○舞 儀

樂奏鳳凰吟一機 無作回舞 俱一列北向 樂止

음악은 鳳凰吟一機를 연주하며, 회무하여 일렬로 모두 북쪽을 향하여 선다.

舞件奏 處容舞 歌曰 新羅聖代昭盛代 天下太平 羅候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대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대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하쌔다

무원은 반주에 맞추어 處容歌를 노래하는데 그 가사는 신라성대, 밝은성대 천하태평 라후덕
처용아비여 이시인생에 상불어 하시란대 이시인생에 상불어 하시란대 삼재팔란이 일시에 소멸
하쌔다.

樂奏鳳凰吟中機 無作 散作花舞

음악이 봉황음 중기를 연주하면 산작화무의 대형을 만들고 춤을 춘다. (흑과 청은 앞으로 나아
가고 백과 홍은 뒤로 물러나며 황은 가운데에서 춤을 춘다.)

相揖舞退

서로 마주보며 읊하고 춤추며 물러난다.

相面相背

서로 마주 보고, 서로 등지고 춤춘다.

回旋數週 俱一列北向

여러장단에 돌며 회선을 한 다음 다시 일렬로 북향을 한다.

舞又作五方舞

무원은 또 오방형을 만들며 춤을 춘다.

中央對四方

중앙의 황은 사방과 마주보며 춤을 춘다.

揮拂轉旋

손을 뿌리며 돌면서 춤을 춘다.

回旋數週 俱一列北向 樂止

수차례 회선을 한 다음 다시 일렬로 북향을 하면 음악이 끝난다.

舞又件奏一曲 歌曰

무원은 다시 음악이 연주되면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사는

春風槿花城에 佳氣鬱 蔥蔥하샀다.

庶俗이 咸熙皞하니 群生이 壽域中이샀다.

춘풍화성에 아름다운 기운이 울창하샀다.

백성들의 풍속이 모두 희한하니 못 백성들이 한결같이

잘 다스려진 영역 안에 있도다.

樂奏 鳳凰吟急機 無作 落花流水 樂止 舞退

음악이 봉황음 급기를 연주하며 낙화유수 동작으로 춤을 춘후 음악이 끝나면 춤을 추며 나간다.

춤의神에 나타나는 처용무는 맨 처음 처용무의 유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회무, 산작화무, 오방무로 총 3종의 배열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 처용무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행 처용무와 달리 맨 처음 회무하여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후 북향을 한 뒤 산작화무 하고 무퇴한다. 상면 상배 이후 회선하여 일렬로 서 북쪽을 바라본다. 이후 4방향에 있는 무원이 중앙을 보고 춤을 추고 회서 한 뒤에 북향을 하면 음악이 멈춘다. 창사 이후 낙화유수 동작을 하며 퇴장한다. ~~樂學軌範神聖~~춤才舞蹈笏記神 등의 문헌보다 간략히 서술되어있으나, 반주음악으로 봉황

음을 기록한 부분과 지금은 춤의 첫 과정에서 평진을 할뿐 회무를 하지 않는데 회무를 한 후 북향하여 창사를 한 점이 상이하며, 특히 춘앵전 홀기에도 나와 있는 낙화유수가 처용무와는 동작이 다른데도 이 용어를 사용함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무 등장은 현행 처용무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현행 사방무라고 통칭되어 있는 부분이 무퇴로 기록되어 있다. 무의의 경우 세부 동작 설명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대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동작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勳이병성 기록서神 처용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병성·성경린 기록서』의 처용무



[그림 2] 1931년 소화6년 이병성·성경린 기록서

[Fig. 2] Sohwa 6th year Record of Lee Byeongseong-Seong Gyeongrin (1931).

勳이병성기록서神는 책 겉면에 勳昌詞及呈才綴神이라고 필기되어있는 기록서로 같은 시대에 함께 학습한 성경린의 필기노트와 구분하여 연구하기위해 勳이병성 기록서神 勳성경린기록서神로 명명하

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병성(李炳星, 1909~1960)은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호는 두봉(斗峯)으로 고종 조의 거문고 대가인 이수경(李壽卿)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922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제2기생으로 입소하였고 장정봉, 박성재, 강명복, 김선득, 김천룡, 유길수, 서상운, 최명룡, 고억만, 이수만, 김점봉, 김천흥, 이순봉, 김만흥, 박영복 등과 1926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졸업한 뒤 아악수·아악수장·아악사를 역임하였다. 박성재, 강명복, 김선득과 함께 피리를 전공하였으며, 양금(洋琴)을 겸하였다. 또한 이주환(李珠煥)등과 함께 하규일(河圭一)에게 가곡을 배웠다. 이후 1939년 아악부를 퇴직하고 1950년 구왕궁아악부 촉탁과 1952년 국립국악원 국악사를 지냈으며, 국악사양성소 학생들에게는 가곡을 지도하였다. 가곡의 명인으로 유명해진 이병성은 일제강점기에 가곡 음반을 취입하기도 하고 1960년 국악진흥회로부터 국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의 가곡은 음반 및 녹음테이프 일부가 남아 있으며 현재 그의 장남인 이동규(李東圭)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동이병성기록서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처용무의 기록 뿐 만 아니라 무원의 이름을 자세히 적어 두었고 세세한 동작 설명을 함께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용무의 창사 부분도 따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는 기존의 동정재무도홀기와 필사 개념과는 다르다. 즉 이병성이 직접 춤추었던 처용무에 나타나는 동작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동이병성기록서에 담겨있는 처용무의 내용이다.

處容舞舞圖

제1조 원조: 李炳星(靑), 朴聖在(紅), 金桂善(黃), 朴昌鎭(黑), 朴老兒

제2조: 張丁鳳(靑), 金得吉(紅), 明鎬震(黃), 金先得(黑), 朴昌均(白)

위에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개필 즉 다시 쓴 명단은 奉海龍(靑), 金永善(紅), 金昌龍(黃), 金琪洙(黑), 金春光(白)이다. 원래 선정했다가 실제로 처용무를 춘 사람이 바뀐 것으로 사료된다.

제3조: 金景龍(靑), 金奉完(紅), 朴昌鎭(黃), 朴德仁(黑), 奉海龍(白)을 김정글씨로 쓴 다음 각 명단 위에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개필 즉 다시 쓴 명단은 金成壽(靑), 洪允基(紅), 金先得(黃), 金琪洙(黑), 崔義植(白)으로 되어 있으며 최의식은 별도로 기록되어있다.

一. 斂手而立

염수하고 나와서 선다.

二. 拍 樂奏壽齊 橫指井邑

음악은 수제천을 연주하는데 빗가락정음으로 한다.

三. 拍 舞進 隨鞭鼓左右手舉置左右腰上(右手先) 오른팔은 압흐로 드러 엇개로서 아래로 내려 허리에 부친다(左手全)弓形을 作한다.

오른손을 먼저 앞으로 들어 어깨를 거쳐 아래로 내려 허리에 부친다.

왼손도 똑같이 한다. 활모양으로 한다.

四. 回旋 左旋隨鼓聲하야 左右手を 압흐로 내 뿌리며 엇혀 부친다.

장고장단소리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와 두손을 앞으로 내 뿌리며 엇혀 부친다.

五. 拍 俱北向而立樂止

박을 치면 다같이 북쪽을 향해 선후 음악이 멈춘다.

六. 拍 昌處容歌 新羅聖代昭盛大 天下太平羅候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디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디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하샀다

박을 치면 처용가를 창 한다.

신라성대, 밝은성대 천하태평 라후덕 처용아비여

이시인생에 상불어 하시란대 이시인생에 상불어 하시란대

삼재팔란이 일시에 소멸 하샀다.

七. 拍 訖樂作 鄉唐交奏

박을 치면 창사를 마치고 향당교주를 연주한다.

八. 拍 五者皆俯腰而並舉兩置袖下直膝上 두팔뺨압흐로 들어 엇흐로 부친다.

박을 치면 청, 홍, 황, 흑, 백의 다섯 명은 단계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두 팔을 들었다가 양 옆으로 내려 무릎 위에 놓는다. 사실은 두팔을 앞으로 들어 옆으로 부친다.

九. 拍 靑紅者 回顧相面 (허리를 꾸부려 서로 본다) 中靈山

박을 치면 청, 홍자는 서로 허리를 꾸부렸다 마주본다.

음악은 중령산을 연주한다.

黑白者 回顧相面 上소

흑, 백자도 서로 돌아 마주본다. 위와 같다.

黃者 回顧而東 上소

황자는 동쪽을 향해 돌아본다. 위와 같다.

十. 拍 俱北向

박을 치면 다 같이 북쪽을 향한다.

十一. 拍 靑紅者 回顧相背 허리를 꾸부려 서로 본다

박을 치면 청, 홍자는 서로 등지고 돌아서 허리를 꾸부려 서로 본다.

黑白者 回顧相背 上소

흑, 백자도 서로 등지고 돌아본다. 위와 같다.

拍. 黃者 回顧而西 上소

황자는 서쪽을 향해 돌아본다. 위와 같다.

十二. 拍 俱北向而立

박을 치면 다같이 북쪽을 향해 선다.

十三. 舞進三步 隨舉足 舉兩手揮前

춤을 추면서 앞으로 세 번 나가는데 발을 들어 올릴 때 양손을 들어 뿌리며 나간다. (좌우의 손을 앞으로 뿌려서 양옆에 각각 놓는다.)

十四. 靑白前進作前隊 팔을 얹어 부친다

청, 백은 앞의 대열로 나아간다.(팔을 얹어 허리에 부친다.)

黑紅後退作復隊 黃者居中

흑, 홍은 뒤의 대열로 다시 물러나가고, 황은 가운데에 선다.

十五. 拍 東西相對而立 拍 先舉右手足而欹頤 次舉左手足而欹頤

박을 치면 동, 서로 서로 마주보고 선다. 박을 치면 먼저 오른손을 들고 족도하며 턱 앞으로 기울인 다음 왼손을 들고 족도하며 턱 앞으로 기울인다.

十六. 拍 東西相背而舞

박을 치면 동, 서가 서로 등지고 춤을 추며, 오른손을 들고 족도하며 턱 앞으로 기울인 다음 왼손을 들어 오른손과 같이 한다.

十七. 拍 南北相對而舞 拍 先舉右手 앞으로 휘여니여 뺏는다 次舉左手-上소

박을 치면 남, 북이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며, 먼저 오른손을 앞으로 들어 휘어내려 뺏는다. 그다음 왼손을 들어 오른손과 같이 한다.

拍 南北相背而舞

박을 치면 남, 북이 서로 등지고 춤을 추며, 먼저 오른손을 들어 휘어내려 뺏는다. 그다음 왼손을 들어 오른손과 같이 한다.

十八. 拍 回旋 右旋 두팔을 들어 압흐로 진는다 한거름 나가면 半거름 뒤로 退한다 (黃在黑之間) 細灵山

박을 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춤추며, 두팔을 들어 앞으로 모은다. 한걸음 나아가고, 반거름 뒤로 물러난다. 이때 황은 흑의 사이에 있다. 음악은 세령산을 연주한다.

十九. 拍 俱北向而舞 退

박을 치면 다 함께 북향을 한 후 뒤로 물러난다.

二十. 拍 舞進

박을 치면 앞으로 나오며 춤춘다.

廿一. 拍 進作五方 各立其方

박을 치면 오방형을 만들며 나아가 각 그 방위에 선다.

廿二. 拍 黃東向而舞 靑向中央對舞 舉左手 前進三步 退三步翻袖而退 欹頤而次

박을 치면 황은 동쪽을 향해 춤추며, 청은 중앙 즉 황과 마주보며 춤춘다. 왼손을 들고 앞으로 세 걸음 나가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며 소매를 번뜩이며 춤을추고 턱을 기울인다.

廿三. 拍 黃南向而舞 紅向中央對舞 上全

박을 치면 황은 남쪽을 향해 춤추며 홍은 중앙의 황과 마주보며 위와 같이 춤춘다.

廿四. 拍 黃西向而舞 白者向中央對舞 上全

박을 치면 황은 서쪽을 향해 춤추며 백은 중앙의 황과 마주보며 위와 같이 춤춘다.

廿五. 拍 黃北向而舞 黑者向中央對舞 上全

박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해 춤추며 흑은 중앙의 황과 마주보며 위와 같이 춤춘다.

廿六. 拍 黃者向東方而舞 靑者對舞 垂楊手舞 무릎집피(三絃)

박을 치면 황은 동쪽을 향해 청과 마주보며 수양수무를 춤춘다. (무릎집피) 음악은 삼현도드리를 연주한다.

廿七. 拍 黃者向南方而舞 紅者對舞 垂楊手舞 무릎집피(三絃)

박을 치면 황은 남쪽을 향해 홍과 마주보며 수양수무를 춤춘다. (무릎집피) 음악은 삼현도드리를 연주한다.

廿八. 拍 黃者向西方而舞 白者對舞 垂楊手舞 무릎집피(三絃)

박을 치면 황은 서쪽을 향해 백과 마주보며 수양수무를 춤춘다.(무릎집피) 음악은 삼현도드리를 연주한다.

廿九. 拍 黃者向北方而舞 黑者對舞 垂楊手舞 무릎집피(三絃)

박을 치면 황은 북쪽을 향해 흑과 마주보며 수양수무를 춤춘다. (무릎집피) 음악은 삼현도드리를 연주한다.

卅. 拍 立者回旋 黑者先出 黃在白赤間 (念佛)

박을 치면 회선을 하며 돌아갈 때 흑이 먼저 나가고 황은 백과 홍의사이로 간다. 음악은 엄불 도드리를 연주한다.

卅一. 拍 還立其方 北向而舞

박을 치면 각 방향의 자리로 돌아와 모두 북쪽을 바라보고 춤춘다.

卅二. 拍 黑者舞退 紅者舞進五者齊行而舞進而立

박을 치면 흑은 뒤로 물러나고, 홍은 앞으로 나온후 다섯명이 모두 한줄로 서서 앞으로 나와 선다.

卅三. 拍 舞退俱北向而立

박을 치면 뒤로 물러나 다같이 북향을 하고 뒤로 물러나며 춤춘다.

勳(이)병성기록서(神)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勳(무)의(神)와 달리 매우 자세하게 동작 설명이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이 수제천, 향당교주, 삼현, 엄불 등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방무에서는 현재 황이 흑과 마주한다음 청, 홍, 백의 순서로 대무하나 이병성 기록서에서는 황이 청, 홍, 흑, 백의 순서로 대무함을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서에는 무보 외에 일본어로 처용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그 원문과 번역은 아래와 같다.

處容舞の歌

처용무의 노래(처용가)

성경린의 기록서에도 일본어로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勳(성)경린기록서(神)중 무보 외에 일본어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勳(성)경린기록서(神)에 나타난 일본어의 부분은 일본의 종백작의 처용무에 대한 질문과 그 당시 성경린의 심경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勳(성)경린기록서(神)29쪽에 기록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昭和十六年五月十日午後三時。宗伯爵がお越しになられたとき、處容舞をご覧に入れたところ、ご興味深げに觀賞され、ときどき案内役のわたしに質問されるぐらいだった。その中でも重要なことを一点指摘された。それはわたしたちの気づかなかったところだったから、たいそう恐縮した。
つまり、五方處容の方位が初めと終わりがよくできておらず、ただ中間五方の時だけ揃っているのは何故か、というお尋ねである

소화16년 5월 10일 오후3시 종백작(宗武志伯爵, 덕혜옹주 남편)이 행차하셔서 처용무를 관람 하셨을 때, 흥미있게 감상하면서 때대로 안내역인 나에게 질문하였을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 부분은 우리들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황송하였다. 즉 오방처용의 방위가 처음과 마지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오방에 모여져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이밖에도 처용무를 배우며 연습한 과정들이 기록 되어있는데 勳정경린기록서神56~53쪽에 그 기록이 담겨 있다. 그러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昭和十六年(1941년 4월8일~11월 21일)에 연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 중

*五月十七日(土) 處容舞(回旋)を始める

5월 17일(토)_ 처용무를 시작하다.

*六月十二日(木)(宴舞)舞(處容)、教習と同時に前回の復習

6월 12일(목) (연무)춤(처용), 교습과 함께 전회의 복습

*六月十四日(土) (宴舞)前회를今一度、復習

6월 14일(토) (연무) 전회를 한번 더 복습

*六月二十一日(土) (宴舞)(處容)相對面の舞を演ずる

6월 21일(토) (연무)(처용)상대무의 춤을 연습하다.

*六月二十八日(土) (宴舞)演ず

6월28일(토) (연무)연습하다.

*七月三日(木) (宴舞)演ず

7월3일 (연무)연습하다.

*十月二十四日 宴舞 處容舞五方舞進退 第一部を教習

10월 24일 연무 처용무 오방무진퇴 제1부를 교습

*十月二十五日 處容舞

10월 25일 처용무

*十月二十八日 處容舞 終部敎習完了

10월 28일 처용가 마지막 부분까지 교습 완료

*十一月六日 佯舞の時なれども、宴舞を演ず

11월 6일 일무 시간임에도 연무를 연습하였음

*十一月七日 處容舞の汗衫を着て元差備 光山(哲)・金子・佐々木・西原・若木(勇)を配して演習一回

11월 7일 처용무의 한삼을 끼고 원래의 차비를 함. 김기수(光山哲三)·김철영(金子滉)·이장성(佐々木長成)·西原信彦·장흥기(若木勇)를 배치하여 연습을 1회함.

위와 같이 勳정경린기록서神에는 처용무에 대해 기록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처용무의 춤사위 분석과 반주음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VI. 결론

지금까지 이왕직아악부의 교재 勳무의神와 勳이병성기록서神를 검토하였고, 勳정경린기록서神를 참조하여 현행 처용무와 함께 비교 및 분석을 하여 음악 구성, 작대도의 변화와 현재 추어지지 않는 동작들을 아래와 같이 발견 할 수 있었다.

1. 음악은 勳무의神에서 봉황음 1기, 중기, 급기를 반주음악으로 사용하였고, 이병성, 성경린의 기록서에는 동일하게 “수제천- 橫指井邑횡지정음”이 표기되어있고, 鄉唐交奏, 中靈山, 細靈山, 三絃, 念佛과 勳이병성기록서神에는 보이지 않으나 勳정경린기록서神에는 낙화유수 할 때 細還入(자존도드리)이 표기되어 있다. 창사는 勳무의神에는 鳳凰吟一機 다음 창사 가사와 鳳凰吟中機 후에 “春風化城에 氣 蔥蔥하샷다. 庶俗이 咸熙悍하니 群生이 壽城中이샷다.”를 노래하고 鳳凰吟急機를 연주한다고 되어있으며, “新羅聖代昭盛代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대 以是人生에 相不語하시란대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하샷다”는 무의와 이병성, 성경린 기록서와 동일하다. 1929년의 교재인 무의와 1931년의 기록서가 다름으로 그사이 2년간에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2. 작대도는 처음 등장하여 좌, 우 거수를 한 다음 회무를 하며 이는 국립국악원이 소장하고 영인한 動才舞圖笏記神의 '처용정재'에 "三匝"이 기록 되어있는 것과 같이 돌아 들어오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며 '回舞', '左旋'으로 되어있다.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았으나 1930년 영친왕의 한국 근친연에 주어진 정재를 영상으로 기록한 <조선무악>을 보면 한 바퀴를 크게 돌아와 복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오방무를 출 때 황이 흑, 청, 홍, 백의 순서로 상대무를 추는데 이병성, 성경린의 기록에는 황이 먼저 청과 상대무를 하고 홍, 백, 흑의 순서로 춤을 추며, 翻袖 등 지금 추고 있지 않는 동작들이 기록되어있으며, 이는 <조선무악> 영상에서도 확연히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부터 1940년간의 처용무에 관해 상세히 기록되어있는 舞儀神와 이병성기록서神 성경린기록서神의 연구는 기존의 樂學軌範神 動才舞蹈笏記神등의 문헌보다 현행 처용무와 흡사하면서도 음악과 춤동작의 설명이 상세히 기록되어있고, 상이점들이 있기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문화유산인 처용무를 올곧게 전승하며, 계승 발전시키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1930년대의 처용무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樂學軌範神 動才舞圖笏記神와 <조선무악> 영상을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Gojong Gyesanyeon. (1893). Jeongjaemudoholgi(呈才舞蹈笏記).
- [2] Sohwa 4th year. (1929) Mui(舞儀).
- [3] Sohwa 6th year. (1931) Record of Lee Byeongseong-Seong Gyeongrin.
- [4] Woosong Lee, (1969) Analysis(一分析) of Cheoyong's story in Samgukyusa(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 Dr. Kim Jaewon's collection of writings in commemoration of his 60th birthday(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 [5] Yongbeom Lee. (1969). Study(一研究) on Cheoyong's Story(處容說話). Jindanhakbo(震檀學報), 32.
- [6] Hyegu Lee. (2000). A Series of Korean Musicology5, Sinyeokakhakgwebeom. National Classical Music Institute.
- [7] HeungguLee. (2000). Cheoyongmu. Hwasan Culture.